

여수시, 빅데이터 집중 활용 인구 유출 막는다

지역데이터 분석 공모 선정 감소원인 맞춤 정책 수립 3년간 전입 전출 분석 등 인구추이 생활인구 분석

여수시가 과학행정기반 인구정책 지원 지역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를 가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실시한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 사업' 공모 선정 됐다.

시는 지역 경제간 생활인구와 인구가 동 및 소득격차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특성 분석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3년간의 전입 전출 △1인 가구 경제 특성 △광역단위 경제활동 인구 통계 △관내 및 관외에서 시로 와서 생

활하는 생활 인구 등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 행정에 기반한 인구감소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순천과 광양 등 지역 간의 전입과 전출 인구 소득 기반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 간의 인구이동 원인분석'과 '경제적 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인구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추이 예측과 생활인구 분석, 가맹점 입지분

석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기업들의 여수 진출 유도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발굴과 정책실현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열대거세미나방 긴급방제 지원 고흥군, 옥수수 작목 258농가

고흥군은 검역 대상 외래 해충인 열대 거세미나방 유충(애벌레)이 지난 17일 발견됨 따라 옥수수 작목 258농가 76ha 대상으로 긴급방제 약제를 즉시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옥수수와 수수·벼 등 화본과 작물을 갈아먹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이 시기 어린 벌레가 옥수수 잎과 줄기를 갈아먹는 해를 끼친다.

알부터 성충까지 44일의 발육기간을 가지고 100~300개의 정도의 알을 산란하며 번식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성충은 다른 먹이원을 찾기 위해 10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방제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약액이 옥수수 작물 전체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한 약액을 살포하고, 애벌레는 야행성이므로 가능한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고 난 후 방제가 효과적이다.

조진용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선물 이벤트 여수시, 6월2일까지

여수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6월2일까지 '여수사랑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벤트는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추첨해 여수상품권 3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다.

참여방법은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선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당첨 결과를 6월 중으로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상자에 개별 연락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물체험장 운영기간 확대 광양시 백운제테마공원

광양시는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백운제테마공원 물체험장 운영 기간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물체험장은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7일간 운영되며 지난해 2주(11일)간의 운영을 거쳐 이용객 수요 증가를 반영해 16일 연장해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은 봉강면 봉당리 일원에 연면적 5061㎡ 규모로 조성됐으며 성인·청소년·물놀이풀, 어린이풀, 유아풀 등 총 4개의 물체험장과 정자, 샤워실, 화장실, 잔디광장 등이 갖춰져 있다.

입장료는 연령과 관내·관외 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관내 기준 2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은 2000원이며 관외 기준 2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2000원,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은 4000원이다.

시는 1억7000만원을 투입해 물체험장 개장 전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풀과 성인풀, 주변 바닥까지 전면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배수로 66m를 신설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지하수 관정 개발과 안전한 수처리를 위한 자동염소 투입장치 등을 새로 설치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클린데이 환경정화 활동 광양시 광양읍

광양시 광양읍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광양읍을 만들기 위해 지난 18일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클린데이 활동을 익산·초남 공단 해안도로 일원에서 실시했다.

20일 광양시 광양읍에 따르면 이날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광양동백로타리클럽, 비타민음악동아리, 광양읍체육회, 광양퍼플로타리클럽, 광양중앙로타리클럽, 광양로타리클럽 등 7개 사회단체 회원과 광양읍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클린데이 활동은 2개 청소구간으로 나눠 익산·초남공단 해안도로 일대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광양읍을 조성하기 위해 동참해주신 단체회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광양읍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청년창업 정책 간담회 개최 문승욱 구례군의회 의원 주관

지난 16일 오후 2시 구례군의회에서 문승욱의원이 주관하는 청년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각 분야의 청년대표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구례의 미래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간담회는 문승욱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구례군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 황혜경 팀장과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정수현 팀장으로부터 구례군 청년정책에 대한 설명, 2건의 기초 발표 그리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초발표는 '구례상생협동조합'의 서동형 대표와 '자라는공동체' 최석우 대표가 '구례군에 바라는 청년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종합 토론회에서는 문승욱 의원을 좌장으로 문준호(구례군 임업후계자협의회 회장), 박창민(구례청년위원회), 송유립(귀농귀촌인), 정강석(구례청년4-H회장), 서동형(구례상생협동조합), 최석우(자라는공동체대표), 배광명(문화대장간), 한규진(체협농장) 등 참석자의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구례군의회는 이날 제시된 청년 대표들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례군 청년을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승욱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의 고민의 출발점이라 생각되며 청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지난 18일 광양시 광양읍이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여수 웅천친수공원에서 재즈페스티벌 열린다

친환경 피크닉 존 운영

'여수재즈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오후 4시~8시 30분까지 웅천친수공원에서 열린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개최 후 대성황을 이룬 올해 '여수재즈페스티벌'은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음악에 빠져들 수 있도록 친환경 피크닉 존으로 운영된다.

오프닝은 여수 대표 재즈 뮤지션인 이학경을 중심으로 한 4인조 밴드 이학경 퀸텟이 장식한다.

이어 화려한 연주 실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과 친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내

최고의 펑크 밴드인 한상원 밴드, 스팅과 에릭클랩튼, 베니골슨 등이 협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영국 맨체스터 출신 트럼페터 데이먼브라운이 결성한 5인조 그룹 데이먼브라운 퀸텟의 섬세한 연주가 뒤를 따른다.

피날레는 한국재즈협회 회장인 아시아 재즈디바 웅산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재즈밴드 웅산밴드의 공연으로 5월의 여수를 설레게 한다.

스페셜게스트로 아코디언 1인자 정태호씨가 협연 페스티벌의 품격을 더해 주며 격조 있는 문화공연에 대한 지역민의 갈증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이다. 의

자 없는 친환경 피크닉 존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람자는 개별 돛자리와 텀블러를 준비하고 일회용품 반입은 자제해야 한다.

비가 오면 행사는 예율마루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예술과(061-659-4737)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연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재즈음악을 접목해 여수의 대표 명품 축제로 육성코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문화도시센터, 시민 문화공간 중마교역소 프로그램 운영

전시·체험클래스·팝업 스토어 등

광양문화도시센터는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위치한 시민 문화공간 '중마교역소'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중마교역소는 광양과 인근 도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전시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 클래스, 팝업 스토어까지 시민의 일상에 힐링과 활력을 선물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광양문화도시센터는 광양시민과 주변 도시민들이 문화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권역별 거점형 문화공간들을 조성했다.

그중 하나인 '중마교역소'는 (사)여수

광양항발전협의회로부터 기증받은 컨테이너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물류'를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공간으로 해 '물류도시 광양'이라는 도시의 상징성도 더했다.

지난해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올해는 작가들의 전시, 팝업스토어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상시 운영한다.

올해 개관 프로그램은 난터켓 바스켓 전시 '여정'이다.

여수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조진아 작가의 전시로 오드리 햅번을 비롯한 전세계 셀럽들에게 사랑받는 난터켓 바스켓부터 난터켓 전등까지 난터켓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공예 작품을 전시한다.

음악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비롯해 웹툰 원화, 캐릭터 피규어 디오라마 등의 다양한 전시가 예정돼 있다. 팝업북 제작, 업사이클 유리컵 공예, 차(tea) 체험 등의 윈데이클래스 등도 준비됐으며, 팝업스토어는 각종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된다. 시민 공간 대관은 지난해 이어 계속된다.

박시훈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은 도심 속 자연으로 시민들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그곳에 자리한 중마교역소 또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일상의 피로를 덜어낸 도시민들의 삶에 문화를 더할 수 있도록 전시, 대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